

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

불화·단청·조각·불교 건축 전문

원장 김영식

T. 931-2287(화실), 936-0069(전사관)

현대불교

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
빅맨평생통장

●비밀번호 0000로만 로그인
●내역은 직영점과 ATM
●고객카드 주머니, 영수증지갑
●노년생활자금 등 다양한
대용서비스 제공

국민은행

명예회장 노대행 /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/ 논설고문 고은 / 편집국장 최정희 / 인쇄인 김규식 / 등록번호 다-3379 / @110-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 / 대표전화 737-8881 / 편집국 722-4162 FAX 737-0698 / 광고국 737-0692 / 구독신청 737-0693

구독료 : 월 4천원 1년 4만원

불기 2539년(서기 1995년) 12월 6일 수요일 (주간)

THE HYUNDAE BULKYO

불교의 생활화·현대화·세계화

금주의 법구

법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
법을 진실로 보호한다.
(지리키)

법회 안내

보문정사 (02)437-3905

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초하루법회 매월19(음) 오전10시

지정법회 매월 18(음) 오전10시

성통사 (02)336-2062

일요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

장기법회 매월 일 오전11시

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청소년법회 매월 1·3주 일

오전10시

지비정사 (062)234-0879

항희기도법회 19(음) 오전10시

거사법회와 첫째주 일 오전9시

대원사 (062)222-4613

초산암법회 매월19(음) 오전10시

중·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

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

대구한마음선원(053)426-2779

일산신도법회 매월 둘째주 일

오전10시30분

거사법회와 매주 목 오후7시30분

창남법회 매월 수 오후7시30분

광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

중·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

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

대구 보리원 (053)582-7611

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가족법회 매월1주 일 오전11시

중·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

충주 심심사(041)847-7296

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중·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

낙산사 포교당(039)7671-4167

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항연법회 매주 금 오후7시

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

군안법회 매주 일 오전10시

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·포

교당은 전화(722-4162) 팩스

(737-0698)로 연락바랍니다.

구독료납부 은행지모
3054464

우체국 계좌번호
010041-0255243

“보살의 손 ‘盧씨 한파’ 녹인다”

브라이언 탕화연하장·미영순 자서전등 수익금 소외층에

“이 수익금은 무의탁 노인을
모시고 있는 성남시 ‘부처님마
을 자광원’에 공양합니다.”

정통기법의 수려한 연등관세
음보살 탕화가 그려진 연하장
뒷면에 쓰여진 글귀다. 이 연하
장의 탕화를 직접 그리고 노인
돕기를 꾀는 사람은 벽안의 미
국인 불자 브라이언 베리(51·

(주)대우 근무)씨.
그는 인간문화재 만봉스님에
게 10년동안 사사 받은 탕화습
씨를 발휘해 올 연말 연시에
을 자랑원에 전달했다.

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
한파로 사회가 온통 어수선한
가운데 올 연말은 유난히 마음
이 좁고 쓸쓸하다는 소리가 많
다. 연말이냐며 패셔아 찾게되
는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도 사
회혼란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
다는 것이다.



‘작은나눔 큰 기쁨’ 한마음법등 저금통

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열어
가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
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
습니다.

연말연시에 즈음하여 현대
불교신문사는 조계종 사회복
지재단과 공동으로 공익행생
의 동체대비 기르기를 실천하
기 위해 한마음선원 후원으로
‘한마음 법등 저금통 모금운
동’을 전개합니다.

‘한마음 법등 모금운동’으
로 모인 기금은 새해 설날
불교사회복지시설·단체에 전
달됩니다.
온정의 대불사에 적극적인

동참을 바랍니다.

동참방법

1) ‘한마음 법등’ 모금통을
각 가정과 이웃분에게 나눠
줍니다.
2) 후원금 통장도 가능합니
다. 각 은행 88번 창구에서
지리번호 7621929 (북)조계종
사회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을
보내면 됩니다.

문의/현대불교신문사(02-
722-4162~3)·조계종 사회복
지재단(02-723-5105)·한마음
선원(0343-72-3100)

한마음법등모금운동본부
(조계종 복지재단·현대불교신문사)

표)의 보시로 만들었다. 이처럼
좋은 뜻들이 모여서 마침내 지
난 11월 23일 일차 3백70만원
을 자광원에 전달했다.

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
한파로 사회가 온통 어수선한
가운데 올 연말은 유난히 마음
이 좁고 쓸쓸하다는 소리가 많
다. 연말이냐며 패셔아 찾게되
는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도 사
회혼란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
다는 것이다.

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
불교계의 동체대비 정신의 실
현은 더욱 귀하게 드러난다.
지난해 장애인복지 연하장
모금을 받았던 불자 미영순씨
(한국현대종교연구소 연구원·
봉은사 장년회 지도법사)는 연

말연시 산물용으로 자정적 예
세이 단행본을 출판에 관여 수
익금 집행을 장애인 자활기금
에 출 예정이다.

본인이 사각장애인인 미씨는
오는 12월 초 출간될 <눈물고
인 가슴에 눈물 대신 품은 뜻>
(고려된 귀염)이란 저서에서
삶의 의지와 생명의 외경심을
진솔하게 담았다.

“지난해, 연하장 판매 수익금
으로는 원력만큼 성과가 따르
지 못했습니다. 장애인을 돕기
위해 더 많은 대화와 공감대형
성을 이루고자 책을 냈다”고
말하는 미씨는 “비록 장애가
있어도 남을 위해 살수 있다는
보람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”고
밝혔다. 그래서 이책은 연말연

시에 좋은 선행이된다.
또 선화가 수안스님(봉은사
축사암)은 직접 창작한 반야달
경 전각 작품으로 96년 새해달
력을 제작 불우노인을 도울 계
확이다.

연말연시 일일이 불우이웃을
돌아보기 쉽지않은 바쁜 현대
인들에게 이처럼 감동적인 선
물이 될만한 연하장, 책, 달력
을 구입하는 것은 이웃에게 정
겨운 마음전달도 되며, 불우한
이웃을 돕는 보시 실천으로도
이어질수 있다. 그래서 연말 사
회적 한파에 사달리면서 ‘선
물도하고 이웃도 돕는 일’에는
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이 모아
질 것으로 기대된다.

(위영란 기자)

‘종토세 면제’ 원로스님도 나서

공원관리공단 축출·산문폐쇄도 불사

조계종 원로회의 의원님들은
“법정선에 어긋나고 행정성
에 부합하지 않는 사찰 토지
관련 세금제도(종토세 토초세
등)를 전면 거부한다”고 전면
하고 “사찰 토지에 임의로 자

연 공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전
면 거부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
은 사찰의 토지에서 풀러갈
것”을 촉구했다.
해당 승한 원당 일타스님 등
원로회의 의원 13명은 지난달

28일 조계종 청사 4층 회의실
에서 원로회의를 갖고 ‘삼보
정태와 사찰 토지 수호를 위한
결의문’을 채택, “사찰 토지에
무원칙한 세금이 부과될까
를 끝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

목어

오래전에 사람들이 모여 우
스스게 소리로 하는 이야기를
들은 일이 있다.
대구에 아주 바람기가 심한
남자가 있었다. 고민하던 부
인은 어느날 보약을 달여 들
고 남편의 뒤를 마셨었다. 그
리고는 외한 여자와 편지를
하는 남편에게 말했다.
“여보 바람을 피우시려면
힘이 있어야 하니 이 약을 드
세요.”
결국 부인은 남편의 바람을
제했다고 한다.

바람이란 많은 아주 다양하
게 쓰이고 있다. 바람기, 바
람잡이, 비자금바람등 어떤류
의 바람이든 바람이 일면 사
람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
말리듯 정신을 못치러고 바
것인가.
공복 50년이 이제 한달도
채 안남았다. 지난날을 돌아
보며 내일의 도약을 위해 울
린 촉하 광파래와 퍼레이드
가 무색하지 않도록 마무리

바람을 재우는 지혜

타속으로 달려들기 일쑤다.
요즘도 그렇다. 노회 비자
금파문, 15년만에 뒤살아난
12·12, 5·18등이 바람이되
어 우리사회 곳곳을 휘몰아
치고 있다.
이 바람은 과연 언제쯤 잘

기류도 잘 점검하고 경제도
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
이다. 신문지상에서는 연일
‘법과 양심’, ‘일칙과 명분’
‘합리적’이라는 말이 바람을
다스리는 방법으로 오르내리
고 있다.
그러나 지금 진정으로 필요
한 것은 말보다 이해(利應)를
떠나 똑똑히 실천하는 나라
사람이다.
말이 지나치게 난무하면 바
람잡이는 자꾸만 멀어질지도
모른다. 슬기와 지혜를 모아
새해가 오기전에 바람을 재
우자.



불자미술인 고속철 경주통과반대

민족문화유산 불교예술인연합회(합불연·회장 강형일)는 지
난 11월 29일 고속철도 경주통과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
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. 합불연은
경주통과안이 철회될 때까지 회원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‘고
속철도 경주통과반대 지식전’을 벌이기도 했다. (김영란 작)

없는 등 민족 역사와 함께 해
온 불교종단 존립까지 심각하
위협받고 있다”고 우려하며 정
부가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 들
이지 않는다면 산문폐쇄도 강
행하라고 지시했다.

‘종토세’ 백만서명 돌입

조계종 총무원이 종토세가
면제될 때까지 백만인 서명을
등을 벌이기로 했다.

북한 수재민돕기

범종교 합동기도회

범종교 북한수재민돕기 추
진위원회(위원장 이은구한국
선명회장은) 오는 8일 오후2
시 세종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
북한수재민호황등을 인터넷상
으로 벌여온 버나드 크리스티
자(정 뉴스위크동경지국장)를
초청 현상 설명회와 함께 북
한 동포를 위한 공동기도회를
갖는다.

본사후원 이근후 박사
경주 석불 사진전·13면

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

發進. 21世紀

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
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-
변화할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.

중전사업부문

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
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
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
실현하고 있습니다.

■ 변압기, 차전기, 전장용 계전류, 용접기, 설비설비

기전사업부문

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
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
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
산업기계 및 장비개발로 산업
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■ 전동기, 발전기, 감속기, 주철설비, 환경보전설비, 화학장치, 석도설비

FA사업부문

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
하여 고기능,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,
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
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
제안합니다.

■ 계장설비, UPS, PLC 등 전계전지, 물류 SYSTEM, SERVO SYSTEM,
FA SYSTEM, 신호제어 SYSTEM

건설사업부문

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
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
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
창조하고 있습니다.

■ 아파트,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, 도로,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,
포장공사, 준설공사